

칸트

순전한 이성에 의해 판단하려면 인간은 통상 순전히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는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주체에 대한 의무는 이 주체의 의지에 의한 도덕적 강요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의무 지우는 주체는 첫째로 하나의 인격이어야만 하고, 둘째로 이 인격은 경험의 대상으로 주어져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인격의 의지의 목적을 지향하여 노력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일은 오직 두 실존하는 존재자 상호 간의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특 122p)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일부 피조물과 관련하여 동물들을 폭력적이고 그리고 동시에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내면에서 더욱더 배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동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은 인간 안에서도 둔화되고, 그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 소질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특 129p)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훨씬 더 심각하게 거스르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것을 삼가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공유된 감정을 무디게 하며, 사람 간의 관계의 도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연적인 소질을 약화시키고, 점차 그 소질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수특 50p)

자연 중에 생명이 없음에도 아름다운 것에 대해 파괴를 일삼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반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도덕성을 매우 촉진하고, 적어도 그를 위해, 곧 무엇인가(예컨대, 광물계의 아름다운 결정체들, 식물계의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를 유용성에 대한 고려 없이도 사랑하도록 준비시키는 감성의 정조인, 인간 안의 감정을 약화시키거나 절멸시키기 때문이다. (수특 48p)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는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그러한 파괴적 성향은 인간의 도덕성에 기여하는 감정을 약화시킨다. (2020 수능 16번)

자연 안에 생명이 없는 아름다운 대상들에 대한 파괴를 일삼는 것은 도덕성을 크게 촉진하는 감정들을 약화시켜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한다. (2019 수능 9번)

자연 체계 내에서의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대지 산물로서 평범한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도덕적, 실천적 이성의 주체로서 인간은 자연 안에 존엄하며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2019 6평 9번)

늙은 말이나 개와 같이 오랫동안 봉사한 동물들에게 감사의 정(情)을 표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언제나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따름이다. (2019 9평 12번)

코헨

인종 차별주의는 인간의 인종 집단 사이에 어떤 도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악한 것이다. 그러나 살아 있는 생물 종들 사이에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수특 53p)

종간의 도덕적 차이에 따라 동물을 차별함을 옹호하는 종 차별주의는 인종 차별주의와 달리 정당한 것이다. 인간과 동물은 도덕적 능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인간의 것을 더 고려하는 차별은 정당하다. 우리가 명료하게 생각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때 우리는 모두 종 차별 주의자이다. (수특 53p)

어떤 존재가 권리를 소유하려면 윤리 규범의 고안 능력이나 자율성 등을 지녀야 하는데, 동물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 (수특 49p)

아퀴나스

인간이 야수를 죽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동물은 신의 섭리에 따라 당연하게 인간에 의해 이용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그것들을 죽이거나 혹은 다른 어떤 식으로 이용함에 있어 부정을 저지른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수특 131p)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자연법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간이 동물의 고통에 동정심을 느낀다면 인간에게는 더 많은 동정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의 뜻이다. (2018 9평 9번)

베이컨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지식이 곧 힘이다.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어떤 효과도 낼 수 없다. 자연은 오로지 복잡함으로써만 복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수특 131p)

아리스토텔레스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자연은 계획하고 있는 목적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는, 즉 전혀 헛되게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는 우리의 믿음이 옳다면, 자연은 특별히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들어 냈음에 틀림없다. (수특 135p)

데카르트

인간의 기술은 자연을 모방하고, 인간은 생각이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자동기계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이 인공적인 자동기계들보다 훨씬 더 근사한 자동기계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 같다. 이런 자연의 자동 기계들은 동물들이다. (수특 53p)

레건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는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를 가진 개체들은 결코 마치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다른 것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수특 48p)

본래적인 가치를 갖는 존재들은 모두 일정한 권리를 갖는다. 이와 같은 권리는 자의식이 있고,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삶의 주체라면 어떤 존재라도 갖추고 있으며,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유용성과는 무관하게 주어진다. (수특 53p)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믿음과 욕망, 지각과 기억, 자신의 미래를 포함하는 미래에 대한 감각, 쾌락이나 고통이라는 감정과 함께 정서적 생활, 선호와 복지,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행위 할 능력 등을 갖는다는 것이다. (수특 133p)

삶의 주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들은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내재적 가치는 무조건적인 개념으로, 그것을 갖거나 갖지 않는 것이지 중간은 없다. (2020 9평 10번)

일부 동물들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우리가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그 공동체는 보존될 것이다. (2019 수능 9번)

욕구를 가진 존재는 타자와 구분되는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다. 이 존재는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삶의 주체이며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2018 6평 15번)

싱어

만약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와 같은 고통을 고려하지 않으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평등의 원리는 그 존재가 어떤 특성을 갖건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쾌고 감수 능력은 다른 존재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우리가 옹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경계가 되는 것이다. (수특 47p)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는 평등한 이익 고려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리고 그 고통의 결과는 동등하게 고려되는 것이므로 특정 종, 즉 인간만의 고통을 중시하는 차별주의적 태도는 거부되어야 한다. (수특 53p)

고통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존재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우리가 옹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경계가 되는 것이다. 지능이나 합리성 등과 같은 특징으로 경계를 나눈다는 것은 임의적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예컨대 피부색과 같은 다른 특징을 경계 기준으로 채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수특 129p)

만일 한 존재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러한 고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할 도덕적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그 존재가 어떤 성질을 가졌든 간에, 평등의 원칙은 그 존재의 고통을, 어떤 다른 존재와 대략의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한, 그러한 존재들의 비슷한 고통과 동등한 것으로 볼 것을 요구한다. 만약 한 존재가 고통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을 겪을 수 없다면, 고려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것이 타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감각(sentience)이라는 경계선이 유일한 옹호 가능한 경계선이 되는 까닭이다. (수특 123p)

도덕적 기준은 어떤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존재들의 이익과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그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2019 6평 9번)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평등의 논리를 인간에게만 적용하고 종들 간의 관계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임의적이다. (2018 6평 15번)

단지 호모 사피엔스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도덕적 고려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종차별주의적 발상이다. 쾌고 감수 능력은 우리가 어떤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할지 여부를 평가하는 유일한 경계이다. (2015 수능 14번)

테일러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것의 외적 활동뿐만 아니라 내적 작용이 목적 지향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신의 종을 재생산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생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해 주는 항상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체가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 되게끔 하는 것은 자신의 선을 실현하도록 방향 지워진 유기체의 작용이 갖는 일관성과 통일성이다. (수특 124p)

우리의 도덕적 관심을 요구하게 만드는 것은 살아 있는 유기체가 지니고 있는 자연적인 목적 추구 능력이다. 의식이 있든 없든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존과 행복을 향하여 움직이는 목적 지향적 활동의 단일화된 체계라는 점에서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수특 130p)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기체의 존재 지속과 종족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수단인 생물학적 작용의 성공적 수행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일정한 경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표 지향적이라는 의미이다. (수특 133p)

생명체가 선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생명체는 자신의 성장, 발전, 생존, 번식을 실현하려는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진다. (2020 9평 10번)

동식물은 고유의 선을 갖는 실체이다. 이러한 관점을 지닌 합리적 인격체들은 자연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취하고, 동식물을 내재적 존엄성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된다. (2016 수능 15번)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며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할 존재이다. 인간은 생명체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2018 6평 15번)

무당벌레와 진딧불의 관계와 같이 하나의 종(種)을 위한 선은 다른 종을 위한 선이 아닐 수 있다. 모든 생명체는 그 자신의 선을 가지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2019 9평 12번)

슈바이처

인간은 자기를 도와주는 모든 생명을 도와줄 필요성을 존중하고, 살아 있는 어떤 것에도 해를 끼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만 비로소 진정으로 윤리적이다. 인간은 이 생명 혹은 저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서 동정을 받는지에 대해 묻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느낄 수 있는지도 묻지 않는다. (수특 124p)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은 그 자신의 생명을 외경하는 것과 똑같이 모든 살려는 의지에게도 외경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낀다. 그는 그러한 다른 생명을 자신 속에서 경험한다. 그는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촉진하며, 발전 가능한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고양시키는 것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인간은 다른 생명을 희생해 가며 살아 나가야 하고 생명을 죽이고 손상함으로써 계속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잔인한 법칙에 얽매어 있다. 그러나 그는 윤리적 존재로서 가능한 한 이러한 필연성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며, 생명 의지의 분열을 지양하고자 노력한다. (수특 130p)

능동적 존재로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모든 생명과 하나라고 느낌으로써 세계에 대해 정신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생명의 운명을 자신 속에서 체험하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 가능한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 의해 실현된 생명의 촉진과 구제를 가장 큰 행복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만일 인간이 세계 속에 충만해 있는 생명과 자신의 관계의 신비에 관해 생각하게 된다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모든 생명에 대해 생의 외경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수특 132p)

네스

‘큰 자아실현’이라는 규범은 기본적으로 쾌락적 기쁨을 추구하는 고립된 자아로 정의되는 근대 서구적 자아를 넘어섰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립되고 협소한 경쟁적 자아로 보지 않고 가족과 친구,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간과 동일시할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큰 자아실현’은 거기에 더해 인간을 넘어 모든 자연과의 일체화를 요구한다. 생물권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살고 번성하여, 결국 ‘큰 자아실현’의 맥락 안에서 자기 나름의 개별적인 삶을 전개하고 자아실현에 이르게 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기본적인 직관은 생태권에 존재하는 모든 유기체와 모든 실재가 상호 연관된 전체의 부분들로서, 본래적 가치에서 동등하다는 것이다. (수특 132p)

레오폴드

지금까지 진화된 모든 윤리는 하나의 공동된 전제를 지니고 있다. 즉 개인은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본능은 그에게 그 공동체 내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라고 촉구한다. 그러나 그의 윤리는 그에게 협동도 하라고 촉구한다. 대지 윤리는 이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과 동물, 그리고 토지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것이다. (수특 130p)

대지 윤리는 단순히 이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과 동물, 곧 포괄하여 토지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것이다...(중략)...간단히 말해서 대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킨다. 대지 윤리는 인류의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수특 125p)

대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켰다. 대지 윤리는 인류의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인간은 사실상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를 생태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인간의 활동으로서만 설명되어 온 많은 역사적 사건들은 실제로는 사람과 땅의 생명적 상호 작용이었다. (수특 132p)

바람직한 대지 이용에 대한 낱알의 물음을 경제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 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미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도 검토하라.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수특 135p)

새로운 윤리는 도덕적, 심미적 관점을 담아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지의 사용을 이익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2019 6평 9번)

동물, 식물, 토양이라는 회로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샘, 그것이 자연이다. 사슴이 참나무 외에도 백여 종의 식물을 먹는 것처럼 먹이 사슬의 여러 고리로 연결된 자연은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이다. (2016 수능 15번)

동물, 식물, 토양이라는 회로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샘, 그것이 자연이다. 사슴이 참나무 외에도 백여 종의 식물을 먹는 것처럼 먹이 사슬의 여러 고리로 연결된 자연은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이다. (2016 수능 15번)

흙, 물, 식물, 동물, 인간을 포함하는 생명 공동체는 생명적 성질을 지닌다.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지배자가 아니며, 대지 위의 모든 존재는 평등한 구성원이다. (2020 6평 6번)